

웹진

대학스포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웹진 | 2015. 12 Vol. 14

커버스토리

2015대학농구신인상

동국대 **변준형**

스포츠라이트

성신여자대학교 컬링부

멘토를 만나다

‘선수들의 그림자에서 더욱 빛나는’
대한항공 점보스 홍원기 트레이너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7월부터 뿌려진 땀방울과 열정
남자부 67개팀, 여자부 7개팀이 각축전을 펼친
대학동아리U리그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승패에 상관 없이 농구를 사랑한 모든 선수들이 챔피언입니다.
2015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Contents



04



커버스토리

‘변코비’ 동국대 변준형,
대학농구 신인왕의
2015년을 돌아보다

08



스포츠라이트

**“얼음 위에서 피워내는
소녀의 꿈”,
성신여자대학교 컬링부**

대학리그소식	2015 카페베네 U리그 왕중왕전 결산	10
	블루워커를 넘어서다, 경희대학교 최승욱	12
	여제의 품격, 용인대학교 최정민	13
	대학배구 지나간 2015, 다가올 2016	14
	KUSF가 되돌아보는 2015 아이스하키 대학부 REVIEW!	16
페이스메이커	긴장감 넘치는 랠리(Rally)가 진행되는 친숙한 스포츠, 족구의 매력에 빠지다	18
동아리 U리그	우리도 된다!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20
동아리 열전	이불 밖을 안전하게! - 연세대학교 크로스핏 동아리 ‘크왕’	22
대학스포츠강독	“홈 어드밴티지(Home Advantage)”,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	24
멘토를 만나다	‘선수들의 그림자에서 더욱 빛나는’ 대한항공 점보스 홍원기 트레이너	26
레전드 매치	한국야구의 근간이 되는 대학야구, 대학야구 전성기의 명승부를 짚어보다.	28
KUSF NEWS		30
취재 후일담		31

‘변코비’ 동국대

변준형, 대학농구 신인왕의 2015년을 돌아보다



변준형의 별명은 ‘변코비’다.

제물포고 재학 시절

경기에 출전했다 하면 20~30점을
넣는 모습에 NBA의 득점 기계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름을 빗대어
만들어진 별명이다.

동국대 입학 전부터 대형가드의
등장으로 주목받았던 그는
고려대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단국대와의 8강 플레이오프까지
대학농구리그를 소화했다.

이뿐만 아니라 프로-아마최강전과
U-19(19세 이하) 세계선수권까지
출전하면서 눈코 뜰 새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의 어느 날
그를 만나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했던 2015년을
되돌아보았다.



목표달성! 대학농구 신인왕

올해 변준형이 거둔 수확 중의 하나는 대학농구리그 신인상 수상이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전현우(고려대)와 원종훈(단국대) 등을 따돌리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약 35분을 출전하면서 13.9점 3.6리바운드 2.5어시스트 1.8스틸을 기록했다. 그중 출전시간은 팀 내 1위로 1학년으로서 이례적인 수치다. 보통 1학년들이 벤치에 대기하면서 선배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데 반해 그는 불박이 주전으로 코트를 누볐다. 입학예정자 시절 대학스포츠 블로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신인상은 노릴 수 있으면 노리고 싶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막연했던 목표는 현실이 되었다.

Q.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별 다르게 하는 건 없고 다음 달에 열리는 농구대잔치 대비해서 다 같이 모여서 훈련하고 있어요. 플레이오프 때 가지고 있었던 허리부상은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많이 괜찮아졌어요.

Q. 2015 대학농구리그 신인왕으로써 신인상을 탄 소감을 말씀해주신다면 시상식 때도 말했었지만 제가 혼자서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형들과 감독님이라 코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신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1학년이기 때문에 형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패스 같은 걸 형들한테 찰려주고 그래서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크게 잘한 건 없어요. (주변반응과 상금은 어떻게 썼나) 친구들이랑 동생들은 먹을 거 사달라고 하고 부모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주변에 자랑을 많이 하셨다하더라고요. 상금은 그냥 어머니 다 드렸어요.(웃음)

Q. 2011년 대학농구리그 신인상이 생긴 이래로 고려대와 연세대 선수가 아닌 다른 학교에 속한 선수가 최초로 타게 되었다.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받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고려대와 연세대에 있는 선수들보다 동국대에서 많이 뛸 수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이전 신인상 수상자 2011년 이승현, 2012년 허웅, 2013년 이종현, 2014년 허훈)



Q. 대학농구리그에서 거뒀던 자신의 개인기록에 만족해요? 만족을 별로 못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기록이 좋았는데 대학교에 오니까 농구가 잘 안 돼서 점점 기록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서 기록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기록을 올리고 싶어요. 득점은 16점, 어시스트나 스틸은 평균 3~4개로 올리고 싶어요.

Q. 리그 후반기에 접어들어 3점 슛 정확도가 높아졌는데 리그 전반기와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었나요?(전반기 19%→후반기 42%) 전반기에는 슛보다는 패스라든지 팀에 어울리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역할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점차 적응하고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안 되었던 슛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에 슛 연습을 많이 했어요. 다 같이 슛 연습을 하면서 좀 더 집중해서 쏘니까 정확도가 더 올라갔어요. 개수보다는 제가 쏘고 싶을 때까지 연습했어요. (서대성 감독이 슛 정확도 향상을 위해 1대1 지도와 NBA 영상을 구해준 것으로 들었는데 효과는) NBA 영상을 보면 선수들이 잘하잖아요. 그 이후로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NBA를 조금씩 챙겨보기 시작했어요. 슛 폼은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쏠 때 느낌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Q. 변준형 선수의 장기인 돌파의 위력은 탄탄한 웨이트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언제부터 웨이트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나요? 고등학교 때는 거의 웨이트를 안했고요. 대학교에 올라와서 거의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감독님이 웨이트를 강조하셔서 많이 하다 보니까 힘이 붙었어요. 고등학교 때랑 비교해서 약 5kg 정도 몸무게가 늘었어요. 웨이트를 많이 하니 다른 학교의 가드들이랑 부딪쳐도 힘에서는 별로 밀린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어요. 근데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조절하면서 (웨이트 훈련을) 하고 있어요.

Q. 변준형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김선형(서울 SK 나이츠) 선수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돌파에 강하고 3점슛이 다소 약한 점이 비슷한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주변에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너 김선형같이 플레이한다. 이리다가 제2의 김선형 되는 거 아니냐.”고 장난으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아요.

Q. 올해 대학농구리그에서 가드 중 유일하게 덩크를 시도하고 성공했어요.(2번 시도 중 2번 성공) 연습 때는 안 하고 연습경기를 하거나 경기 시작

전에 몸풀기할 때 자주 하는 편이에요. 원래 투핸드나 앨리웁덱크도 할 수 있는데 원핸드 덩크가 빠르고 정확하니까 자신 있어요. 레이업슛을 할 때보다 환호해줘서 기분이 훨씬 더 좋아요. 내년에 기회가 더 되면 많이 시도해볼 의향이 있어요. 덩크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봐야겠어요.(웃음) 고려대하고 연세대하고 할 때 한 번 덩크해보고 싶어요.

고려대와 4번의 일전, 아쉬웠던 플레이오프

동국대의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성적은 11승 5패로 5위. 대학최강인 고려대에게 얻은 패배만 2패였다. 결국 건국대와 승패는 같았지만 승자승 원칙에 밀려 4위에서 밀려났다. 4위와 5위는 올해 개편된 플레이오프 방식에 따라 각각 6강과 8강으로 출발점이 달랐다. 리그 중반까지 3위를 유지하면서 6강 직행을 노린 동국대에게는 아쉬운 결과였다. 단판으로 펼쳐진 플레이오프에서는 정규리그 8위 단국대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언더독’의 희생양이 되었다. 떨어진 데에는 경기 내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경기를 돌린 동국대 체육관에서 치르지 못한 점도 한몫했다. 올해 초 제작된 가이드북에서 목표로 신인왕과 함께 대학리그 우승을 내세웠던 변준형에게 8강 탈락은 너무나 이른 시즌의 끝이었다.

Q. 대학농구리그 첫 경기였던 고려대전에서 대패했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3쿼터까지 13점을 앞서는 등 올해 4번 붙어 다 패하긴 했지만 대학최강 고려대와 좋은 경기를 했어요. 고려대와 첫 경기를 시작할 때부터 긴장을 많이 했어요. TV에서만 보던 선수들이었고 다들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긴장을 하고 코트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농구를 잘 못 했어요.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감독님께서도 지더라도 보여줄 거는 다 보여주라고 하셔서 열심히 했어요. (4번 정도 고려대와 붙었는데 이제는 붙을 만하나요?) 아니요.(웃음) 여전히 힘든 상대예요.

Q. 플레이오프 바로 직전 경희대를 연장 접전 끝에 이기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단국대에게 지면서 떨어졌어요. 많이 아쉬웠어요. 그 때 허리 부상을 당해서 1주일 동안 운동을 못 하고 경기에 나섰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몸 관리를 더 잘했으면 이것을 텐데 못 이겨서 형들하고 감독님께 죄송했어요.

Q. 허리부상에도 불구하고 21점을 넣으면서 활약했는데 그 때 어떤 각오로 뛰었나요? 무조건 이긴다는 각오로 경기를 뛰었는데 몸 상태만 더 좋았다면 더 잘했을 거라 생각해요.



높았던 프로와 세계의 벽

대학무대에서 제 기량을 보여주면서 신인왕을 거머쥐었던 변준형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먼저 대학농구리그 전반기가 끝난 뒤 열렸던 U-19 세계선수권 국가대표에 뽑혀 세계의 농구유망주들과 실력을 겨룰 기회가 주어진 것. 24.7분 출전에 7.7점 3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의 가드라인을 이끌었다. 하지만 코트에서 뛰는 그의 플레이는 어딘가 무거워 보였다. 또한 8월 열린 2015 KCC 프로아마최강전에서는 양동근이 이끄는 프로최강팀 울산 모비스와 맞붙었다. 프로 형님들과 대결하는 첫 실전무대에서 7점 6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팀을 승리로 이끌진 못했지만 이대현(현 서울 SK)에게 연결하는 멋진 패스와 박구영의 단독 속공을 블록하는 플레이는 팬들의 눈도장을 찍기 충분했다.

Q. 프로아마최강전에서는 박구영 선수의 슛을 블록하는 등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프로아마최강전 경기를 했을 때 관중도 많고 프로 형들이랑 한다고 하니깐 긴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도 농구를 잘 못 했지만 공격보다는 수비나 다른 쪽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Q.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인 양동근 선수와 상대해보니 어땠어요? 역시 잘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희 동국대학교 앞선 선수들을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Q. 지난해 U-18 아시아선수권에서는 에이스로 활약하며 세계선수권 티켓을 따냈지만 올해 U-19 세계선수권에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음... 제가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조선대와 경기에서 왼쪽 허벅지 부위를 다쳤어요. 근데 다친 부위의 증상이 심해져서 피멍이 들고 물이 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쉬다가 트레이너 선생님께 다리가 너무 아픈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너 이거 말했다가는 세계대회 못 간다. 가서 벤치에 앉아있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경기를 바로 뛰게 했어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애들이랑 붙었는데 힘이랑 기술에서도 밀리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Q. 부상을 무릅쓰고 세계대회를 출전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세계 애들이랑 한번 부딪쳐봐야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출전을 꼭 하고 싶었어요. 붙어보니깐 확실히 유럽 애들이 키도 큰데 농구를 간단하게 하고 슛도 쉽게 넣으니까 어려운 면이 많았어요. 그래도 아시아선수권에서는 중국한테 졌는데 세계선수권에서는 이겨서 이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2016년을 기대하라

내년의 동국대 농구부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팀의 중심이었던 이대현과 서민수(현 원주 동부)가 프로로 진출하면서 팀 색깔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변준형은 내년 4학년이 되는 김승준·김광철과 함께 동국대 농구부를 이끌게 된다. 변화된 동국대 농구부와 더불어 U-19 세계선수권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했던 고교유망주들이 대거 합류하게 되어 더욱 흥미진진한 2016년 대학농구를 예고했다. 변준형은 동계훈련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신입생 때보다 좀 더 나은 플레이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

Q. 서대성 감독은 변준형 선수가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전력감으로 판단하여 주전으로 찍찍했어요. 부담감은 없었나요? 부담



감이 많았어요. 감독님께서 제가 못할 때도 주전으로 넣어주시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부담감이 생겨서 처음에 적응을 잘 못 했던 것 같아요.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해) 그냥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하나하나 움직임에 세심하게 신경 쓰려고 노력했어요. 지금은 많이 부담감이 없어졌고 제 스타일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Q. 4쿼터 승부처에서도 슛을 과감하게 던지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팀에서 변준형 선수에게 공을 맡기는 게 애기가 된 것인가. 담대한 성격인 것 같은데 평소 성격도 무서워하는 게 없는가. 고등학교 때도 4쿼터만 되면 원가 흥분이 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쏘면 들어갈 것 자신감이 있어요. 감독님께서 지시한 건 아니었어요. 승부처에서 쏘면 리그 마지막쯤에는 잘 들어갔는데 그 전에는 잘 못 했으니까... 평소 성격은 무서워하는 게 많아요. 벌레 같은 것도 무서워하고 귀신같은 것도 무서워서 잔인하거나 무서운 영화도 잘 안 봐요.(웃음)

Q. 신인상을 타는 좋은 일도 있었고 팀이 플레이오프에 떨어지는 아쉬운 일도 있었는데 2015년을 돌아보면 어떤 해였나요? 아쉽지 않을까요. 플레이오프에 떨어지고 제 생각보다 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기쁘기도 한데 아쉬움이 더 큰 해였다고 생각해요.

Q. 이번 동계훈련을 통해서 가장 보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가드로서의 플레이를 좀 더 배우고 싶어요. 슈팅가드뿐만 아니라 포인트가드 그리고 나아가서 스몰포워드의 플레이까지 배워서 앞선 포지션의 플레이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내년엔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팀 성적이 정규리그는 올해만큼 5위에 올라가고 싶고 플레이오프는 그 때 가서 생각할게요.

Q. 내년에는 대표팀에서 같이 뛰었던 고3 선수들이 대학으로 진학한다.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송)교창이는 프로로 갔으니까 고등학교 후배인 (유)현준이가 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현준이는 포인트가드인데 패스를 잘하고 미들슛도 정확하고 드리블도 잘 치는 편이에요. 현준이를 상대하게 되면 선배로서의 자존심이 있으니 잘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글/이규호 (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자세한 기사는 KUSF 대학스포츠 블로그 (http://kusf_sport.blog.me)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코비’ 동국대

변준형,

대학농구 신인왕의
2015년을 돌아보다



“얼음 위에서 피워내는 소녀의 꿈”, 성신여자대학교 컬링부



국내 컬링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1994년 창설된 대한컬링경기연맹, 그 흐름에 발맞춰 성신여자대학교는 이듬해 국내 최초 여자 대학 컬링부를 창단했다. 기본적인 시설은 물론 컬링에 대해 아는 이 하나 없었지만 먼 훗날 한국에서 열릴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기초부터 하나씩 살림을 꾸려나갔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한국 여자 컬링의 근간이 되어 함께 미래를 꿈꿔나가는 성신여자대학교 컬링부를 소개한다.

* * *

국내 유일의 여자 컬링 양성소

성신여자대학교 컬링부는 1995년에 창단되어 20년간 그 명맥을 이어온, 전통 있는 국내 유일의 여자 대학 컬링 팀이다. 때문에 한국 여자 컬링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이뤄내며 크게 주목받았던 여자 컬링 대표 팀 멤버 5명 중 4명이 성신여대 출신이고 팀 창단 멤버들 역시 모두 성신여대에서 기량을 갈고닦은 이들이다. 성신여대 컬링부를 창단하고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며 여자 컬링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김현경 교수는 **“이것이 바로 교육자의 보람”**이라며 뿌듯한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흥행에도 컬링은 동계종목 가운데 여전히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종목이다. 냉담한 현실 속에서 성신여대

컬링부 역시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시설이다. 현재 국내에서 컬링장은 서울 태릉과 경북 의성, 단 두 곳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성신여대 컬링부 주장 정재이는 **“컬링장이 멀어서 평소에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요. 빙질이 좋지 않아서 시합에 나가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훈련시간도 대표 팀이 우선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훈련을**

하지 못하죠.”라며 열악한 훈련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목적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컬링은 얼음 위 새겨진 과녁(하우스)의 중앙(티)에 더욱 가까이 스톤을 가져다 놓는 팀이 이기는 스포츠다. 양 팀이 10엔드에 걸쳐 경기를 진행하며 각 엔드에 선수 당 2개씩



투구



스위핑



총 16개의 스톤을 투구한다. 각 팀은 4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주장이자 작전 지시를 하는 스킵과 투구 순서에 따른 리드, 세컨, 서드의 총 네 가지 포지션이 있다. 리드가 공을 투구하면 세컨과 서드가 얼음 위를 닦는 스위핑 동작으로 스톤의 진행방향과 속도를 조절한다. 그러면 스킵이 스톤의 최종 목적지를 지정해 작전을 지시한다. 모든 엔드의 끝에서 더욱 많은 스톤을 티에 가져다 놓는 팀이 승리하기 때문에 역전 가능성이 높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종목이다. 또한 체격, 체력 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컬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겨울 스포츠다.

작전이 팀의 승부를 가를 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컬링은 **“얼음 위의 체스”**라 불리기도 한다.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의 수많은 전략과 작전들이 있다. 팀 내 서드를 맡고 있는 강수연은 **“차가운 얼음 위에서 펼쳐는 치열한 두뇌싸움”**을 컬링의 매력으로 꼽았다. 네 명이 힘을 합쳐 하우스까지 스톤을 옮겨야 하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팀워크 또한 필수다. 더해 주장 정재이는 **“한 경기가 약 세 시간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력은 물론 체력과 정신력이 정말 중요해요.”**라며 기본기와 정신적인 측면 또한 강조했다.

이러한 종목의 특성상 김현경 교수 역시 평소 선수들에게 목적보다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한다. **“운동, 공부, 인생 모두 매 순간 최선을 다 하다 보면 원하는 바를 이**



김현경 교수

뤄낼 수 있죠. 때문에 연습을 하는 순간의 고통스러운 과정 또한 참고 견뎌 내야 하는 것이고요.” 성신여대 컬링부 모두 과정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다. 때문에 열악한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큰 불평을 하는 법이 없다. 그저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나가며 저마다의 최종목표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우리가 컬링을 멈출 수 없는 이유

때론 그 한 발, 한 발을 옮기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는 경기도청, 경북도청, 전북도청 단 3개의 여자 실업팀이 존재한다. 현존하는 팀의 수가 적은 만큼 선수 수요 또한 많지 않고 그에 따라 졸업 후 선수들의 진로 역시 불확실하다. 강수연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할 때, 대학을 졸업할 때쯤 다른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업팀이 한정적이고 수요가 많지 않으니깐요.”**라며 여자 컬링의 현실을 전했다. 주장 정재이는 오랜 고민 끝에 잠시 운동을 그만두고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성신여대 컬링부가 손에서 컬링을 떼어놓지 못하는 것은 오랜 시간 쌓아온 컬링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이다. 정재이는 컬링을 뒤로하고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떠났을 당시에도 언제나 컬링과 함께였다. **“컬링을 잠시 관렸을 때 정말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캐나다 동호인 컬링 팀에서 운동을 했죠. 운동**

을 안 하면 또 여지없이 생각이 나더라고요(웃음)”라 말하는 그녀에게서는 평생을 컬링과 동고동락할 운명적 기운이 느껴졌다. 강수연 역시 **“어려운 샷을 성공했을 때, 어려운 상황을 뒤집고 역전했을 때의 짜릿함은 절대 잊지 못해요.”**라며 컬링의 매력에 깊숙이 빠져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전해보였다. 컬링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열망은 그녀들이 춥디추운 빙상장에서 포근한 꿈을 꾸게 하는 불씨가 됐다.

기다려라 2018 평창!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올려다보는 태극기, 경기장 가득히 울려 퍼지는 애국가.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꿈꾸고 있는 올림픽에서의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모든 선수들의 목표는 한가지인 것 같아요.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이 있으니 꼭 출전하고 싶어요.”** 성신여대 컬링부 역시 3년 후 평창에서 개최될 올림픽에 크고 작은 꿈들을 품고 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 뜨겁다. 성신여대 컬링부는 올해부터 전담 코치 없이 훈련을 진행했다. 때문에 선수들이 직접 훈련 스케줄과 내용을 미리 정해야 한다. 단지 운동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인 과정 모두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주장 정재이는 **“다른 선수들이 훈련하는 걸 보면서 저희에게도 필요한 훈련이라고 여겨지면 따라서 해봐요. 비록 고급 기술을 터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저희가 하고 싶고, 실제로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라며 밝게 웃어 보였다.



주장 정재이

눈 속에 피는 꽃, 설연화라고도 불리는 복수초는 추운 날씨를 마다치 않고 곳곳이 꽃을 피워낸다. 최대한의 햇빛을 모으기 위해 오목한 모양으로 점차 진화한 복수초를 보면 냉담한 현실 속에서도 저만의 방법으로 꿈을 피워내는 성신여대 컬링부를 똑 닮았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복수초의 꽃말처럼 성신여대 컬링부 또한 컬링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그 날을 기대해본다.

글·사진/서다영(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2015 카페베네 U리그 왕중왕전 결산

- 용인대, 창단 첫 왕중왕전 우승을 이룬다 -

길고 길었던 U리그의 일정이 용인대의 우승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5권역에서 1위로 왕중왕전에 진출한 용인대는 울산대, 광주대, 영남대, 아주대, 성균관대를 만나 매 경기 쉽지 않은 상대와 경기를 했다. 쉽지 않은 팀이었지만 5팀을 차례로 꺾으며 창단 이래 첫 왕중왕전 우승컵을 들었고, 결국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다. 용인대의 왕중왕전 우승 이야기를 왕중왕전의 경기 위주로 다시 돌아보려고 한다.

4:0 대승, 시작이 좋다!

용인대는 왕중왕전 첫 경기에서 울산대를 만나 4:0 대승을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용인대는 문준호가 BTV-CUP 대학선발 차출로 빠지며 약간의 전력 이탈이 생겼다. 그러나 울산대와의 경기에서 공다휘가 멀티 골을, 권순재, 이현성이 각각 한 골을 기록하며 큰 공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전반 26분과 37분, 공다휘가 골을 넣으며 용인대는 전반부터 2:0으로 울산대와의 경기를 이끌었다. 그렇게 후반을 2:0으로 시작한 용인대는 22분 좋은 위치의 프리킥으로 권순재가 추가골을 넣었고, 경기는 완전히 용인대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후반 45분 이현성이 한 골을 추가로 넣으며 뼈대를 박았고, 경기는 그대로 종료되었다. 용인대는 32강에서 울산대를 상대로 4:0으로 기분 좋게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다.

MATCH FILE #1



무패우승 광주대를 격파하다

기분 좋은 승리를 하고 올라온 용인대의 16강 상대는 광주대였다. 광주대는 정규리그 8권역에서 10승 4무, 무패로 1위에 올라 왕중왕전에 올라온 강호이다. 강호를 만나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지만, 용인대는 생각보다 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전반 60분과 63분, 김남성과 공다휘가 연속으로 골을 넣으며 스코어는 순식간에 2:0으로 벌어졌다. 후반 추가시간에 광주대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승부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용인대는 광주대를 꺾으며 8강에 진출하게 되었다.

MATCH FILE #2



산 넘어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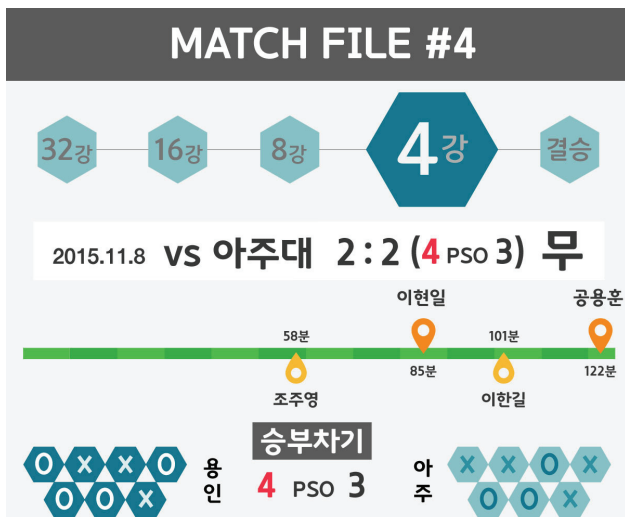
16강에서 8권역 무패우승 광주대를 꺾고 올라왔는데 8강의 상대 역시 9권역에서 무패우승을 하고 왕중왕전에 진출한 영남대였다. 산 넘어 산이었다. 용인대는 올해 2월 열린 춘계연맹전 4강에서 영남대를 만나 결승 진출에 좌절하며 좋지 않은 추억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8강전 역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 예상되었다. 그러나 광주전과 마찬가지로 8강전 역시 경기를 생각보다 쉽게 풀어갔다. 전반전부터 이현성이 골을 넣으며 1:0으로 경기를 리드하였다. 그리고 후반전 추가시간에 이현일이 추가골을 넣으며 기분 좋은 승리를 했고, 결승에 4강 진출 티켓을 얻었다.

MATCH FILE #3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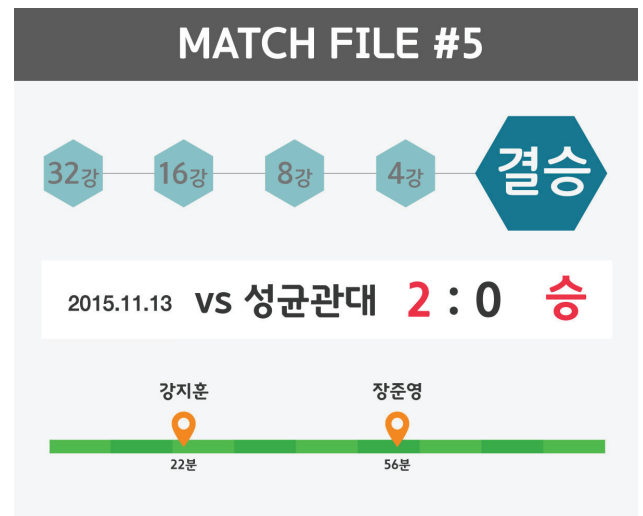
U리그 5권역에서 1, 2위로 올라온 용인대와 아주대가 만났다. 두 팀은 올해 추계대학축구연맹전, 리그에서 만나 이미 3번의 경기를 치렀고, 전적은 2승 1패로 용인대가 앞서고 있었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선제골은 아주대에서 나오며 용인대는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85분에 동점골을 넣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결국 두 팀은 90분 동안 승부를 내지 못했고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전에서도 아주대가 먼저 골을 넣었고, 용인대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그렇게 2:1의 스코어로 연장전 후반의 시간이 흐르며 경기는 아주대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았다. 그러나 연장 후반 추가시간에 용인대가 극적으로 골을 넣었고, 2:2 동점이 되었다. 용인대는 심판의 종료 휘슬이 불기 전까지 경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두 팀은 주어진 120분 동안 승부를 내지 못하고 승부차기까지 갔다. 승부차기에서도 결승 진출 팀은 쉽게 가려지지 않았다. 용인대의 7번째 키커 임채학이 골을 넣고, 아주대의 7번째 키커 박태우가 골대를 맞추며 이 날 경기는 끝이 났고, 결승 진출 팀은 용인대로 가려졌다.

**용인대, U리그 왕중왕전 우승컵을 든다**

용인대의 결승 상대는 성균관대였다. 두 팀 모두 처음으로 왕중왕전 결승에 진출해 남다른 각오를 보였다. 두 팀은 올해 6월 전국체전 경기도 대표 선발전 결승에서도 만났었다. 그 때는 성균관대가 용인대를 4-2로 제압하며 전국체전에 출전했다. 이번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용인

대가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성균관대를 2:0으로 꺾었고, 2015 U리그 왕중왕전의 우승팀이 되었다. 용인대는 전반 22분 1학년 강지훈이 선제골을 넣으며 성균관대에 앞서가기 시작했다. 골을 넣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며 성균관대를 압박했고, 성균관대는 수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후반전에 성균관대는 만회골을 넣기 위해 공격적인 모습으로 경기에 나왔다. 그러나 골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용인대에 한 골을 더 내어주고 말았다. 후반 11분 용인대의 장준영이 헤딩골을 성공시키며 2:0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실점 이후 성균관대는 더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종료 휘슬이 울릴 때 까지 골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용인대는 성균관대를 상대로 승리하며 창단 첫 U리그 왕중왕전 우승컵을 들었다.

이번 왕중왕전에서 최우수선수상에는 이한도가 이름을 올렸다. 공격부터 수비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한도는 결승전에서 센터백에서 성균관대의 공격을 막았다. 왕중왕전을 비롯해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인 이한도는 2016년 전북 현대에 자유계약으로 입단한다. 이한도에 이어 GK상에는 이현우가, 수비상에는 강지훈이, 페어플레이 선수상에는 이현일이 이름을 올렸다. 이현성은 인천 유나이티드에, 장준과 조예찬은 대전 시티즌에 자유계약으로 입단하게 되었다. 이번 왕중왕전에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문준호도 수원 삼성과 자유계약을 하며 현재 5명의 선수가 프로에 입단하게 되었다. 또한 지도자상은 이장관 감독과 박준홍 코치가 받았다. 이장관 감독은 4년 동안 용인대를 이끌어 팀을 최정상 자리까지 올려놓았다. 이렇듯 용인대는 그간의 땀방울을 우승과 수상, 프로입단이라는 크나큰 선물로 돌려받았다.



* * *

‘2015 카페베네 U리그 왕중왕전’은 용인대가 사상 첫 왕중왕전 우승을 하며 끝이 났다. 강팀이 대거 모여있는 5권역에서 1위로 올라와 왕중왕전에서도 힘든 여정이 계속됐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임하며 결국 용인대는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2015년을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던 용인대는 이제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 2016년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과 프로입단으로 전력에 이탈은 생겼지만, 겨울을 굵은 땀방울로 보내며 2016년 더 강해질 용인대를 기대해본다.

글 · 사진/정민지(KUSF 대학생 기자단 블로그팀)

자세한 기사는 KUSF 대학스포츠 블로그(http://kusf_sport.blog.me)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워커를 넘어서다, 경희대학교 최승욱

경희대는 대학농구리그가 출범한 이래로 매년 블루워커형 선수들을 배출해냈다. 최지훈이 그랬고, 배수용이 그랬다. 최승욱은 이러한 블루워커의 계보에 있다. 하지만 이전의 선수들과는 다르다. 그것은 이전의 선수들이 수비에 치중한 선수라면 최승욱은 공격력도 갖췄다. 그야말로 한 단계 진화한 블루워커라 할 만하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다

최승욱은 분명 득점력에서 의문부호가 있는 선수였다. 하지만 올 시즌 그 의문부호를 확실히 뺐다. 한희원에 이은 팀 내 득점 2위. 이뿐만이 아니다. 김철욱이 시즌 아웃된 경희대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팀을 지켰다. 올 시즌 경희대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데는 최승욱의 공이 컸다. 하지만 이런 궂은일이 결코 몸에 쉽게 맞는 옷은 아니었다. 키가 큰 선수, 작은 선수를 모두 수비해야 하다 보니 움직임이 많아졌고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체력저하가 일어났다. “처음엔 저보다 크고 힘 좋은 사람을 막다 보니 힘들었어요. 내·외곽을 오가는 플레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익히긴 했지만요. 대신 체력적으로 소모가 심했죠. 그러다 보니 후반기 기록도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승욱은 공격적인 발전을 이루어 냈다.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선수가 아닌, 궂은일도 도맡아 하는 선수가 됐다.

시즌을 보내며

시즌 중반까지 선두경쟁을 하던 경희대는 시즌 막판까지 선두다툼을 했다. 하지만 막판 동국대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하며 선두싸움에서 이탈했고, 고려대 전도 잡지 못했다. “(김)철욱이 형이 없어서 올 시즌 골밀이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가 전부 키가 크지 않은 편이고, 그렇다고 웨이트도 엄청 센 사람이 없어요. 외곽에서 돌다 보니까 공격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죠.” 그래도 센터 없이 이렇게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경희대만의 힘이 있었기 때문일 터. 그렇다면 경희대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수비적인 부분에서 손발이 잘 맞았어요. (한)희원이형하고 (최)창진이형이 4학년 역할을 잘 해주고, 득점도 해줬고요. 또 저희가 다 외곽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속공을 뛰다 보니 전반기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후반기에는 상대팀들이 이 점에 대해 준비해서 나왔죠. 그래서 후반기 성적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블루워커형 선수들을 수비밖에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스포츠에서 누군가는 화려함을 보이듯 누군가는 궂은일을 해야만 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최승욱이 뒤에서 받쳤기에 한희원과 최창진, 경희대가 빛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글·사진/권오준(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용인대학교 최정민 - 여제의 품격

2015 대학농구리그 여대부는 용인대가 초대 정상의 자리에 오르며 막을 내렸다. 동시에 챔프전 MVP는 용인대 최정민이 수상했다. 최정민은 새내기라 믿겨지지 않는 미친 활약으로 여대부 최강 용인대를 챔피언으로 이끌었고, 본인 또한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이 선수 농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1학기에는 용인대 스포츠레저학과 수석을 차지한 우등생이다. 올해, 농구와 공부 모두 최고의 모습을 보인 그녀에겐 '여제'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을 정도. 2015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며 여대부 정상의 자리에 오른 그녀와의 즐거운 수다로 빠져보자.

기대에 부응한, 아니 리그를 평정한 신입생

여대부 최강 용인대는 최정민 이전, 이종애 플레잉 코치가 골밑을 책임지며 강팀으로 군림했었다. 그런데 올해 리그가 도입되면서, 프로 및 실업 경력이 있는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다. 갑작스레 골밑에서 플레이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1학년이 골밑을 책임지게 되면 누구나 부담감을 느낄거예요. 하지만 감독님께서 많이 믿어주시고 이종애 코치님이 골밑에서 어떻게 플레이 할지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됐어요. 또 저보다 큰 선수들과 상대하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과 함께 민첩성과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저는 주로 골밑에서 플레이하지만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코치진의 믿음과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그녀의 노력은 정상으로 향하는 하이패스가 되었다.

학업 또한 여제다운 성적을 거두다

최정민은 그저 운동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선수 이전 본업인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성적을 남겼다. 공부와 운동을 같이하는 것도 힘들 텐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녀의 비결은 무엇일까? "대학에 오고 나서 처음에는 고교시절보다 운동량이 적어서 마음이 많이 불안했었어요. 그런데 감독님, 코치님, 교수님들이 운동 못지 않게 수업, 과제 등 기본적인 공부부터 일반학생들과의 친목도모 또한 중요하다고 조언해주셨어요. 용인대는 기본 환경부터 학생선수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운동처럼 공부도 악바리로 하면 반드시 1등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힘들 때, 가족이 지치지 않는 원동력이 되어

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과제와 연습으로 지쳐 농구가 잡히지 않는 슬럼프도 왔었다고 고백한 최정민. 그러나 그녀는 악바리 정신으로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기록보다는 신인의 자세를 그대로

흔히 왕좌는 탈환보다 수성이 어렵다 한다. 실제 종목을 떠나 자기관리에 철저한 프로도 한 시즌 반짝하고 사라지는 선수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제 최정민은 벌써 내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선 내년시즌의 목표는 팀으로는 우승, 개인적으로는 초심을 잃지 않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MVP 수상 이후 좀 자만해졌다는 소리가 혹시나 들릴까봐 걱정이 있었어요. 또 2년차 징크스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생기지 않을 것 같지만, 만약 저한테 그런 시련이 다가온다면 더 연습하고 강해져 자만을 모르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라며 당찬 각오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기 스스로를 고교시절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다고 평가한다. 그렇기에 공부도 하고 싶고, 대학에서 4년간 스스로를 더 담금질 한 후 프로에 도전하고 싶었다며 짧은 과거에 대해 얘기했다. 그랬던 그녀는 불과 1년 만에 대학농구 여제의 자리에 등극했다. 찬란한 재능과 피나는 노력이 더해진 결과에도 자만하지 않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최정민. 그녀의 순수한 미소처럼 농구, 공부, 인생 모두 정상급 플레이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지나간 2015, 다가올 2016

2015 대학배구리그 흥행의 주역들이 모두 프로무대로 떠나갔다. 모두가 각 팀의 핵심전력들이었던 만큼 대학 리그 전반적인 전력이탈이 큰 상황. 때문에 다가올 2016년에는 새로운 전력과 전략, 적절한 팀컬러 형성 등이 요구된다. 팀별 보강이 필요한 공백들과 새로운 2016년을 이끌어 나갈 기대주들을 알아보자.



경 기 대 학 교

정동근(R) / 안우재(L) / 김영민(L)

경기대학교는 대학배구리그 독주 시절의 저학년 멤버들이 모두 졸업한다. 특히 기본기와 수준급의 공격력을 갖춘 세 명의 날개 공격수를 한 번에 떠나보내는 것이 경기대로서는 큰 부담이다.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정동근, 안우재의 공백을 2015 전국대학배구리그에서 공격상을 거머쥔 득점 1위 황경민이 빈틈없이 채워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경기대는 정동근, 안우재, 김영민이 돌아가며 리시브의 부담을 나눠보았지만 중심을 잡아줄 리시버를 찾지 못하며 시즌 내 고전했다. 때문에 안정적으로 리시브를 책임질 수 있는,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수비형 레프트의 양성이 시급하다. 날개 공격수를 제외한 센터와 세터 포지션의 경우 저학년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이다. 더해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3년 차 세터 이대원에 더욱 큰 기대를 걸어 봐도 좋을 것이다.



명 지 대 학 교

김은우(C) / 홍신현(C) / 한정훈(L) / 기동균(L) / 황원선(S)

주전멤버 5명이 동시에 졸업하는 명지대학교는 다가올 2016년에 새롭게 팀을 꾸려내야 할 정도다. 한정훈, 기동균을 이을 날개 공격수의 발굴도 필요하지만 세터 황원선의 대체재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 시즌 조황현은 황원선과의 주전세터 경쟁에서 밀리고 말았다. 조황현에게 4학년 최고참이 되는 2016년은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야 할 해이다. 현재 2학년 레프트인 장수웅은 류중탁 감독이 지난 2015년 내내 시험을 해본 차기 주전 레프트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 비교적 만족스러운 기량과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가 향후 명지대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데 힘을 실어줄 날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경 남 과 학 기 술 대 학 교

김영문(C)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주장이자 유일한 4학년으로 팀을 이끌었던 센터 김영문이 떠난다. 2015년의 경남과기대는 특급루키 김인혁을 포함해 8명의 신입생을 영입하며 큰 기대를 모았지만 완벽한 조직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핵심전력인 레프트 김인혁과 리베로 황동선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U-23대회 등 지속적으로 국제 대회에 차출되며 팀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았다. 팀 구성원들과 손발을 맞출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 이와 함께 경험이 부족한 1학년들을 위주로 코트 위를 구성하다 보니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앉기 일쑤였다. 2016년의 경남과기대에는 군대에서 갖 제대한 고참 세터가 복귀해 팀의 중심을 잡아줄 예정이다. 연료의 안정감과 젊음의 패기, 신구의 조화를 통한 강팀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경남과기대의 2016년을 기대해 봐도 좋다.



성 군 관 대 학 교

김병욱(R) / 최형진(R)

2015년의 성균관대학교는 급작스러운 사령탑교체로 다소 불안한 시작을 보였다. 수준급의 실력을 갖춘 신예 세터 황택의를 영입하며 큰 기대를 모았지만 팀을 하나로 뭉쳐내는 힘은 아직 부족했다. 더불어 이시우가 지난해와 비교해 공수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인 점 또한 아쉬웠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배인호와 정수용이 레프트 자리를 놓고 지속적인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차츰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배인호는 작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재치있는 공격으로 어려운 순간마다 공격의 혈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이와 함께 2016년의 성균관대는 석정현(203cm), 정준혁(210cm)으로 센터진을 구성하여 리그 내 신장이 가장 좋은 팀 중 하나다. 센터진의 활약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반전의 2016년을 맞이할 성균관대다.



인 하 대 학 교

나경복(L) / 황두연(L) / 천종범(C)

2015년 4개 대회 전관왕의 주역들이 다 함께 프로선수로 거듭났다. 리그 최장신 센터였던 천종범과 대표적 살림꾼 황두연, 백발백중의 공격력을 가진 에이스 나경복까지 2016년 채워내야 할 공백이 가장 많은 인하대학교다. 우선 황두연의 수비형 레프트 자리는 박광희가 완벽히 대체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희는 황두연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2014년 한 시즌을 책임졌고 현 리그 내 가장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수비형 레프트이기도 하다. 한편 나경복의 뒤를 이어야 할 김성민의 2015년은 다소 아쉬웠다. 국제대회에 참가하며 배구의 시야를 넓혔지만 부진을 면치 못하며 기존의 라이트에서 센터로 밀려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에이스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3학년의 김성민에 인하대의 미래가 달렸다.



조 선 대 학 교

손태훈(C) / 유도윤(L)

전력 면에서는 큰 손실이 없는 조선대학교이지만 파이팅이 좋은 유도윤과 주장으로서 중심을 잡아줬던 손태훈의 부재는 다소 아쉽다. 2016년의 조선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터 조철희의 안정감과 이기창, 원대만, 장술륜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의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시즌 초 조철희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고, 그가 복귀한 후반에서야 세 명의 날개 공격수 역시 살아나며 그 가능성을 엿봤다. 손태훈이 국제대회에 차출될 때마다 그 자리를 채운 박재왕이 센터 포지션에서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미루어본다면 기존에 가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합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서브와 공격 등에서의 범실을 철저히 줄여내야 하는 조선대다.



중 부 대 학 교

지원우(R) / 김동훈(S) / 임호상(L) / 박기현(L)

주포 지원우, 그와의 최고 호흡을 자랑하던 김동훈이 졸업하는 중부대학교 역시 채워야 할 공백의 크기가 꽤나 크다. 하지만 큰 위기감은 없다. 리그 내 가장 탄탄한 백업멤버를 갖춘 팀이기 때문이다. 향후 함형진이 지원우의 부재를 잊게 할 만한 에이스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해 루키 신장호 역시 시즌 내 공격부문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하며 지원우가 홀로 지녀야 했던 공



한 양 대 학 교

김재휘(C) / 김홍찬(L) / 백계중(L)

2015년 한양대학교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것은 그동안 큰 빛을 보지 못했던 김재휘다.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공격과 블로킹 양면에서 맹활약하며 팀 득점에 크게 이바지했다. 더불어 한양대로서는 백계중의 이른 졸업이 아쉽다. 리시브와 수비부문의 뒷받침을 해주던 그이기에 2016년의 한양대는 백계중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레프트 박민범에 큰 기대를 걸어 봐도 좋다. 180cm의 신장으로 신체적 조건은 다소 아쉽지만 시간차 공격과 리시브, 수비 능력 모두 수준급이다. 안정감 있는 수비형 레프트가 필요한 한양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자원이다. 이번 시즌 센터로 활약한 박태환과 용병 추가량 역시 꾸준히 기량을 쌓아 제 역할을 해내 준다면 보다 강한 잠재력을 터트려낼 수 있는 한양대다.



홍 익 대 학 교

김준영(R) / 김재권(L) / 이시몬(C) / 백광현(L)

김준영, 김재권의 좌우쌍포와 센터, 리베로까지 다양한 포지션이 팀을 떠나가는 홍익대학교 역시 다가올 2016년을 구상하는데 골머리를 앓는 팀 중 하나다. 이를 대비해 2015년에 5명의 신입생을 영입했지만 실제 족전감은 한성정뿐이었다. 더불어 세터 김형진 역시 불안한 리시브 탓에 지난 해보다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홍익대는 여전히 풍부한 날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공격형의 한성정과 신해성, 수비형 레프트인 박철형이 모두 저마다의 책임을 감당해낸다면 한 단계 성장하는 홍익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더해 채영근 역시 2015년 시즌 내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덕분에 코트 위의 기본적인 스타팅 라인업은 형성된 상태다. 과연 홍익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KUSF가 되돌아보는 2015 아이스하키 대학부 REVIEW!

대회별로 정리해 본 아이스하키 대학팀들의 2015 시즌 결산

2015년도의 차가운 빙상장도 아이스하키 대학부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대학부 최강팀으로 군림 하던 연세대와 고려대는 올해 역시 라이벌다운 면모를 과시하며 치열하게 대립했고 2012년에 재창단된 광운 대는 26명의 엔트리로 4라인을 갖추며 좋은 기량을 과시해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 하는 경희대와 한양대는 선수 수급이 부족해 엔트리 구성에 애를 먹었지만 꾸준한 대회 참가로 그 명맥을 유 지하며, 다음 시즌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했다. 지난 2월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시작 으로 지난 주말 폐막한 제70회 전국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까지. 올 시즌 있었던 아이스하키 대학부 대 회를 기준으로 올 한해를 총 결산해보도록 하자.

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기간/장소 : 2015. 02. 22.(일) ~ 02. 28.(토) / 목동 아이스링크장

주최/주관 : 대한체육회/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참가팀 : 대학부 3팀(고려대, 광운대, 한양대)

1위	고려대
2위	광운대
3위	한양대

총 3팀이 참가했던 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아이스하키 대학부 결선에선 큰 이변 없이 고려대학교가 정상을 차지했다. 광운대는 그라나다 유니버시아드 대표선수로 활약 한 반한수(4년, F)가 한양대와의 준결승전에서 3포인트(2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결승 진출에 공헌했다. 하지만 고려대라는 큰 거함을 만나 2위를 차지하는 데에 그쳤다. 고려대는 황예현(3년, F)이 3골, 김준희(4년, F)가 2골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공격력을 선보이며 광운대를 8대 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해 2연패를 달성했고 통산 우승 기록 횟수를 '13'으로 늘렸다

제60회 전국 대학부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기간/장소 : 2015. 04. 01.(수) ~ 04. 04.(토) / 인천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주최 :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참가팀 : 대학부 4팀(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한양대)

순위	기록	학교
1	3승	고려대
2	2승 1패	한양대
3	1승 2패	광운대
4	3패	경희대

수상

우승 - 고려대 / 준우승 - 한양대

최우수선수상 - 유신철(고려대)

최다포인트상 - 윤재현(고려대, 7포인트)

우수선수상 - 민승기(한양대)

미가상 - 반한수(광운대)

지도자상 - 이승준(고려대 코치)

다수의 수비수 부상과 훈련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연세대가 불참했던 제60회 전국 대학부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에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한양대 총 4팀이 나섰다. 고려 대는 첫 경기 광운대와 연장 접전 끝에 신승을 거둔 뒤, 한양대에 대승을 거두고 저학년 선수들이 활약한 경희대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3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 작년에 이 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한양대는 정형수(1년, F)와 이승준(2년, F)이 각각 활약한 경희대, 광운대전에서 2승을 거두며 준우승을 차지했고, 처음으로 4라인을 가동시킬 수 있는 엔트리로 대회에 참가한 광운대는 아쉽게 3위에 그쳤다. 경희대는 13명의 엔트리로 힘겹게 대회에 참가했지만 체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에선 고려대 주장 유신철(4년, F)이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고 한양대 정형수가 4골로 득점 1위, 고려대 윤재현(3년, F)이 5어시스트로 도움 1위의 활약을 펼쳤다.

제35회 유한철배 전국 대학부 아이스하키대회



기간/장소 : 2015. 10. 02.(금) ~ 10. 08.(목) / 목동 아이스링크장
참가팀 :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연세대, 한양대

순위	기록	학교
1	4승	고려대
2	3승 1패	연세대
3	2승 2패	광운대
4	1승 3패	한양대
5	4패	경희대

수상

1위 - 고려대 / 2위 - 연세대 / 3위 - 광운대
최우수선수상 - 이연승(고려대)
포인트상 - 김형경, 전정우(연세대, 9포인트)
우수선수상 - 이호성(연세대)
미기상 - 최영민(광운대)
지도자상 - 김희우(고려대 감독)

4월에 있었던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에 연세대까지 합류하며 총 5개 대학교가 경합을 펼쳤다. 예상대로 고려대와 연세대는 나머지 3팀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둔 뒤 8일(목) 비정기전을 치르는 것으로 우승팀을 가리게 됐다. 이날 경기에서 고려대는 1골 1어시스트로 활약한 김민철(2년, F)과 42개의 슈팅을 막아낸 골리 이연승(2년)의 선방 덕분에 연세대를 4대 2로 무찌르고 우승컵을 안았다. 광운대는 반한수(3골, 득점 2위/4어시스트 도움 3위), 박준혁(4어시스트, 도움 3위) 등 주전들의 알토란같은 활약에 힘입어 3년 연속 대회 3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희대와 한양대는 2라인만 가동할 수 있는 수적 열세 속에서도 분전했다.

2015 코리아 아이스하키리그



기간/장소 : 2015. 10. 22.(목) ~ 11. 04.(수) / 안양 실내빙상장
주최/주관 :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참가팀 :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연세대, 한양대 / 동양이글스, 웨이브즈

순위	기록	학교
1	6승	연세대
2	5승 1패	고려대
5	2승 4패	광운대
6	1승 5패	한양대
7	6패	경희대

수상

1위 - 연세대 / 2위 - 고려대 / 3위 - 웨이브즈
MVP - 하재준(연세대)
BEST포워드 - 유신철(고려대), 윤상원(연세대)
BEST디펜스 - 이승원(고려대), 이호성(연세대)
BEST 골리 - 김권영(연세대)
신인상 - 조지현(연세대)
지도자상 - 윤성엽(연세대)

2015 코리아 아이스하키리그엔 대학팀 5개와 실업팀 동양이글스, 독립구단 웨이브즈가 참가하며 7개 팀이 풀리그로 우승팀을 가리게 됐다. 연세대는 이번 대회에서 유한철 배에 비해 나아진 패스 플레이와 탄탄한 수비조직력을 선보이며 숙적 고려대를 무찌르고 6전 전승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연세대는 김형경과 전형우가 대활약하며 팀 승리에 공헌했고 최다득점(45득점)과 최소실점(14실점)으로 가장 높은 골 득실차(+31)을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 걸쳐 좋은 기량을 과시했다. 고려대는 비정기전에서 경기 후반 급격한 체력 난조로 패배의 쓴잔을 받아들였고 대회 전반에 걸쳐서도 압도적인 슈팅 숫자에 비해 다수의 파워플레이를 살리지 못하며 힘겨운 승리를 거두는 경기가 많았다. 광운대는 한양대를 6대 2로 무찌르고, 경희대를 연장 접전 끝에 제압하며 2승 4패로 5위를 차지했다. 경희대의 골리 김도겸(4년)은 광운대와의 경기에서 61개의 슈팅을 막아내는 진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6위를 차지한 한양대는 이번 대회에서 최윤석(1년, F), 정형수(1년, F)와 같은 신입생들의 맹활약으로 미래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성과였다. 특히 최윤석은 5골 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활약에 큰 힘을 보탤었다.

제70회 전국종합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기간/장소 : 2015. 11. 12.(목) ~ 11. 22.(일) / 목동 아이스링크장
주최 :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참가팀 : A조(강원하이원, 고려대, 광운대, 대명상무, 연세대),
B조(경희대, 동양이글스, 안양한라, 한양대)

순위	기록	학교
A조 3위	2승 2패	연세대
A조 4위	1무 3패	고려대
	1무 3패	광운대
B조 3위	1승 2패	한양대
B조 4위	3패	경희대

수상

형경(연세대) 4골 전체 득점 순위 3위,
대학선수 최다 득점
전정우(연세대) 5어시스트 전체 도움 순위
3위, 대학선수 최다 도움
전정우(연세대) 6P 전체 포인트 순위 4위,
대학선수 최다 포인트

국내 아이스하키 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자 이번 2015년도 마지막 대회였던 제70회 전국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에서 대학부 5팀이 참가했지만 실업팀의 높은 벽을 여실히 체험하며 모든 팀이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A조엔 실업 강팀은 물론 대학부 강팀인 고려대와 연세대가 모두 포진되어 죽음의 조가 만들어졌고 B조엔 실업 최강 안양 한라가 버티고 있었다. 5개 대학팀은 이번 대회에서 실업팀을 상대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며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A조 예선에서 펼쳐진 비정기전에선 연세대가 경기 종료 직전 1분 30여 초를 남겨놓고 김건우(3년, D), 전정우(3년, F)가 각각 동점골과 역전골을 차례로 일궈내며 고려대에 4대 3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광운대는 고려대와의 경기에서 효과적인 역습 플레이로 무승부를 거뒀고 한양대는 경희대를 상대로 1승을 기록하며 대회 첫 승을 기록했다. 반면 경희대는 안양한라와의 경기에서 0대 2라는 기록적인 패배를 당하며 오명을 남기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긴장감 넘치는 랠리(Rally)가 진행되는 친숙한 스포츠, 족구의 매력에 빠지다

“족구? 아저씨들 하는 운동 아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중에 공을 다루는 구기종목은 무수히 많지만 공을 발로 다루는 스포츠는 생각보다 적다. 지금 당장 손가락을 펴서 셈을 해보아도 축구, 족구 외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발로 하는 구기종목이 적지만서도, 당장 족구가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잘 알려진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족구는 공을 다룰 수 있는 평지와 네트, 그리고 공만 있으면 소수의 인원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편리한 스포츠이다. 흔히들 배나온 아저씨들이 하는 스포츠라고 여기지만 족구는 우리에게 있어 생각보다 널리 알려진 스포츠이다.

룰도 간단하다. 세 번의 기회 안에 공을 상대진영으로 넘기면 된다. 물론 공의 바운드는 선수당 1회로 제한되지만 이처럼 간단한 룰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족구의 룰은 이게 전부일까? 전체적인 룰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족구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족구는 손을 제외한 모든 신체를 통해 공을 터치해도 된다?

No.

족구는 무릎 아래의 신체 부위와 턱 위의 신체 부위만으로 공을 터치해야 한다. 공원 등에서 간단하게 진행하는 족구는 이러한 룰이 적용되지 않지만 정식 족구는 상기한 두 부분 외에 신체 접촉을 금하고 있다. 즉, 무릎 아래의 발과 헤딩만으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니킥(Knee kick, 무릎차기)은 자제하도록 하자. 정 안되면 안면(?)으로 공을 받아넘겨도 허용되니 유용하게 써먹도록 하자.

2. 족구의 특점은 상황에 관계없이 1점이다?

No.

족구는 특정 득점 루트에 따라 2점씩 득점할 수 있는 종목이다. 점수가 많이 뒤쳐져 있다면 아래의 상황을 연출해내어 역전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를 활용하여 공을 상대방의 몸에 맞추거나 서브를 통한 득점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 **더블 바운드** : 첫 바운드가 코트 안에 떨어진 뒤 지면이나 코트 외부 물체에 닿은 경우
- **바디 터치** : 무릎 아래의 신체부위 및 턱 위의 신체부위 외에 다른 부위가 공과 접촉할 경우
- **오버네트** : 신체 부위가 네트를 넘어가거나, 네트위에 올려진 공을 수비측이 건드릴 경우
(신발이 날아가도 오버네트에 해당)
- **네트 터치** : 신체 부위가 네트와 접촉할 경우

추가적으로 넘어온 공을 바운드 없이 첫 터치에 넘겨서 상대가 유효 터치를 못한 경우도 2점으로 인정된다.



요즘은 인근 공원에만 나가도 네트를 설치하여 족구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군대의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족구의 규칙은 간단하게나마 알고 있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족구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족구는 1991년 대한족구협회를 발족하여 실업팀도 존재하는 체계적인 종목이다. 아저씨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족구장이 있는 공원을 방문하여 지인들과 함께 족구를 즐겨보자.

화성시 향남족구회

향남족구회는 화성시 향남에서 주 2회 야간 운동모임을 가지는 족구동호회이다. 정기모임을 통해 꾸준히 기술을 연마하여 전국대회에도 참가하고 있는 향남족구회는 족구를 통한 친목 도모와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두고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다.

향남족구회는?

우리 족구회는 지역주민들이 대다수이지만, 이곳(경기도 화성시)으로 직장을 다니는 회원들도 함께 운동하며 모임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퇴근 후에 편하게 운동할 곳을 찾아서 가입하게 되는 것 같다. 족구를 한지 12년이 된 베테랑 멤버도 있으며, 동호회를 통해서 전국대회를 포함한 많은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회원들이 느끼는 족구의 매력

많은 스포츠들이 그러하듯 해봐야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족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서 한번쯤 경험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다. 족구의 또다른 장점이라면 부상빈도가 적다는 것이다. 발로하는 또 다른 종목인 축구에 비해 부상을 당할 위험이 절반이하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코트가 넓지 않기 때문에 운동량이 적을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족구는 공을 받으러 가기 위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건강관리에 매우 적합한 스포츠이다.

생활체육으로써 족구의 위치

향남에만 족구장이 있는 공원이 4개가 넘는다. 당연히 이전에 비해 인기가 많아졌으며 생활체육으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저변확대가 족구인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 등 통신 발달을 통해 동영상 시청환경이 좋아졌다. 때문에 일반인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족구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저변 및 생활체육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축구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접근의 용이라는 점에 있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도 뛴다!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농구를 사랑하는 대학생들의 관심이 모두 이 대회로 집중된다. 바로 대학농구동아리 선수들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의 열렬한 관심과 성원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이하 U리그)다. 특히 이번 중부권역 플레이오프와 전국 최강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경기장을 찾은 학우들은 선수들이 펼치는 경기에 박수와 환호로 선수들을 격려했고, 이에 보답하듯 선수들은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금부터 대학농구동아리 내 최고의 대회인 2015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중부권역 플레이오프와 전국 최강전을 되돌아보자.

* * *

혼돈의 연속이었던 남자대학부 중부권역 플레이오프 리뷰

중부1권역 - 고려대학교 ZOO 우승



고려대학교 ZOO(이하 ZOO)가 작년 U리그 챔피언인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이하 볼케이노)와의 중부1권역 결승전에서 72-60, 12점차로 제압하고 작년 결승에서의 패배를 설욕하는 동시에 전국 최강전 본선진출에 성공했다. 그 중심에는 35득점을 몰아친 박진혁이 있었다. U리그 최고의 '돌격대장'인 그는 이번 경기에서도 특유의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볼케이노의 수비진을 휘저으면서 팀의 전국 최강전 본선진출을 이끌었다. 반면 2014년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우승팀이자 올해 상반기에 이미 3관왕(건국대학교 총장배 농구대회, 연세대학교 총장배 교내 대회, 경기대학교 총장배 농구대회)을 달성한 볼케이노는 11월에 복귀한 윤지석이 14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저조한 아투율과 핵심 선수들이 난조를 겪으며 올 시즌을 여기서 마무리했다. 올해 성북구 대학리그 3차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다크호스로 손꼽혔던 광운대학교 H.A.B 또한 주포인 최인성이 분전했지만 조별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가드진들의 난조로 인해 볼케이노에게 패하면서 일찌감치 올해 U리그 행보를 마감했다.

중부2권역 - 인천대학교 스타트 우승

올해 국민대학교 총장배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회(이하 문체부) 대학부 우승을 거머쥔 인천대학교 스타트(이하 스타트)가 강원대학교 줄리어스를 9점차(44-35)로 제압하고



지켜주는 동시에 베테랑으로서 팀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면서 팀의 전국 최강전 진출을 이끌었다. 반면 조별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선보였던 가천대학교 아틀라스와 강원대학교 줄리어스는 강호 스타트를 상대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큰 무대 경험부족을 실감한 채 나란히 탈락하고 말았다.

중부3권역 - 명지대학교 돌핀스 우승

잠시 동안 부진의 늪에 빠져있었던 명지대학교 돌핀스(이하 돌핀스)가 한국체육대학교 칸스(이하 칸스)를 4점차(39-35)로 제압하고 중부3권역 우승을 차지하는 동시에 전국 최강전 진출티켓을 획득했다. 사실 작년 시즌에 비해 올 시즌 초반 돌핀스는 핵심선수들의 졸업 및 불참으로 인해 잠시 부진을 겪었었다. 하지만 '품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돌핀스는 U리그 조별예선에 이어 중부권역 플레이오프에서만은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 중심에는 리그 최정상급 포워드



중부2권역 우승을 차지하는 동시에 전국 최강전 진출티켓을 획득했다. 그 중심에는 리그 최정상급 빅맨으로 손꼽히는 문경인이 있었다. 문경인은 뛰어난 포스트업 능력과 탁월한 위치선정 능력을 바탕으로 팀의

인 이인규가 있었다. 이인규는 특히 칸스와의 중부3권역 결승전에서 폭발적인 퍼스트스텝에서 나오는 뛰어난 1대1능력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더블-더블에 육박하는 기록(10득점 8어시스트)을 세우며 팀의 전국 최강전 진출에 앞장섰다. 또한 기존 핵심멤버이자 블루윙커인 김태훈과 길현규도 리바운드와 루즈 볼 다툼 등 뛰어난 허슬 플레이를 바탕으로 팀의 최강전 진출에 공헌했다. 반면 칸스는 리그 최정상급 빅맨으로 손꼽히는 이덕왕이 든든히 골밑을 지켜주었지만 다른 선수들의 지원 사격 부족으로 인해 아쉽게 탈락의 쓴 맛을 봤다.

중부4권역 - 인하대학교 인하DS 우승

인하대학교 인하DS가 물오른 경기력을 보여주며 성균관대학교 프렌즈와 한양대학교 15ERS를 제압하고 중부4권역 우승을 차지하는 동시에 전국 최강전에 진출하는 이번을 일으켰다. 비록 중부권역 최다 어시스트 4위에 오른 서제훈이 부진했지만 조별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박민환이 2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작성한 동시에 든든 골밑을 지켜주면서 기적 같은 팀의 최강전 진출에 주춧돌 역할을 했다. 반면 올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15ERS는 중부4권역 준결승전에서 작년 U리그 3위 팀인 국민대학교 쿠바를 52-47로 제압하고 문체부 대학부 예선전에서 당한 패배를 설욕함과 동시에 중부4권역 결승 진출에 성공했지만 인하DS를 넘지 못하고 올 시즌은 여기서 마감했다. 그렇지만 이번 대회에 보여준 15ERS의 경기력은 내년 시즌을 더욱 더 기대하게 만들었다. 프렌즈 역시 인하DS와의 중부4권역 준결승전에서 패배하며 일찌감치 이번 U리그를 마감했지만 백코트 듀오인 안민석과 문산을 주축으로 이번 조별예선에서 스타트를 제치고 당당히 G조 1위로 진출하는 등 기대이상의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내년 시즌에 대한 희망을 밝게 했다.



중부권역에 속한 팀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전국 최강전 남자부 리뷰

전력의 격차를 실감하며 모두 8강에서 탈락하고만 지방 대학농구동아리 네 팀



수도권 팀들로만 치러졌던 작년 대회와는 달리 올해는 7월 중순부터 열렸던 남부, 중부권역예선을 통해 네 팀(중앙대학교 CAD, 전북대학교 돌풍, 부산외국어대학교 ACE, 동의대학교 스타트)이 전국 최강전 8강전에 진출했지만, 네 팀 모두 치열한 플레이오프를 통해 진출한 중부권역 네 팀에게 모두 아쉽게 패배하며 집을 싸야 했다. 아무래도 지역 예선에서는 상대팀의 프레스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한 대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지만,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선수층이 두터운 중부권역에 속한 강호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프레스의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제 플레이를 펼치기 어렵다. 따라서 내년 대회에서 지방

대학농구동아리 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프레스를 뚫을만한 확실한 공격패턴에 대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년 연속 결승전에 진출한 ZOO,
작년 8강전 탈락의 악몽을 씻어내고
결승진출에 성공한 돌핀스**

올 시즌 나란히 2관왕을 달성하면서 트레블(3관왕)에 도전하는 ZOO와 스타트의 경기에서 ZOO가 백코트 듀오인 박진혁(23득점)과 심재운(10득점)이 팀 득점의 절반이상인 33득점을 합작한 가운데 문경인과 한태건이 분전한 스타트를 11점차(56-45)로 제압하고 2년 연속 U리그 결승 진출에 성공하는 동시에 스타트와의 리턴 매치에서도 다시 한 번 승리를 거뒀다. 강한 프레스를 통해 2쿼터까지 상대를 11점으로 묶은 게 주효했다.

한편 또 다른 준결승 매치인 돌핀스와 인하DS의 경기에서는 돌핀스가 더블-더블에 육박하는 기록(17득점 9리바운드)을 낸 길현규와 김태



훈(12득점 7리바운드)의 맹활약으로 인하DS를 6점차(46-40)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로써 돌핀스는 올해 열린 메이저급 대학농구동아리대회에 처음으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ZOO, 볼케이노에 이어
2번째로 트레블 달성에 성공**



ZOO가 골밀을 든든히 지키면서 더블-더블에 근접한 활약을 펼친 정우섭(8득점 11리바운드)과 에이스 박진혁(14득점)의 활약으로 정진, 이인규, 길현규가 분전한 돌핀스를 상대로 짜릿한 2점차(45-43)역전승을 거두고 볼케이노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트레블(동아대학교 두바배 전국 대학농구대회, 성북구 왕중왕전, 2015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을 달성했다. 돌핀스는 전반 내내 리드하면서 우승에 한 발 다가섰지만 3쿼터 도중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줬던 이인규가 파울 아웃으로 나간 것이 컸다. 하지만 돌핀스는 올해 상반기 때의 부진을 딛고 하반기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를 밝게 했다.

* * *

남자부만큼 치열한 승부가 계속되었던 전국 최강전 여자부 리뷰

이번없이 결승전 진출에 성공한 EFS와 클러치



전통의 여자대학농구동아리 계의 강호인 이화여자대학교 EFS(이하 EFS)와 올해 더블(2관왕)을 달성한 덕성여자대학교 클러치(이하 클러치)가 나란히 결승에 진출했다. U리그 여자부 정규리그 1위로 진출한 EFS는 극적으로 4위를 차지하며 준결승에 진출한 카리스마(명지전문대)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18점차(32-14)로

대파했다. 비록 초반에는 불안한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두터운 선수층을 활용한 지속적인 로테이션을 바탕으로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무난히 결승에 안착했다.

올해 2관왕(국민대학교 총장배, 덕성여자대학교 전국대학 여자 아마추어 농구대회)을 달성한 클러치 역시 칸스(한국체육대학교)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5점차(17-12)로 제압하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경기 초반에는 칸스의 변칙적인 수비 전술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후반으로 진행될수록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결승진출에 성공했다.

**EFS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올해 트레블 달성에 성공한 클러치**

1쿼터에 단 2점을 기록하는 등 전반 내내 EFS에 끌려 다니던 클러치가 더블-더블을 달성한 편소현(12득점 17리바운드)을 앞세워 EFS에 짜릿한 2점차(25-23)역전승을 거뒀다. 정규리그 최다 득점, 리바운드 1위를 기록한 편소현은 1쿼터에는 상대 수비의 거센 견제에 막혀서 자



신의 플레이를 발휘하지 못했지만 서서히 자신의 장점인 과감한 돌파를 바탕으로 EFS 수비를 휘저으면서 팀의 초대 여자부 U리그 우승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로써 클러치는 올 시즌 출전한 3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글/김기완(KUSF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사진/대학스포츠 DB

이불 밖을 안전하게!

- 연세대학교 크로스핏 동아리 '크왕'

극심한 취업난으로 대학생들은 과거와 달리 즐거움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즐거움 속에서 자기개발의 성격이 있어야 그들의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추세는 대학교 동아리 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즐거움과 신체적 건강이라는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는 연세대학교 크로스핏 동아리 크왕. 올해 6월 만들어진 신생 동아리임에도 130명에 가까운 동아리 회원들이 같이 땀 흘리며 운동하고 있다. 반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어떤 비결로 급성장 할 수 있었을까? 크로스핏과 크왕의 매력을 알기위해 박준태 회장과 얘기를 나눴다.



위기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운동, 크로스핏

크로스핏은 미국 그렉 글라스먼 코치가 소방관, 경찰관 등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의 체력과 근력을 키워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더 민첩하고 강한 움직임과 더 나은 신체적 건강을 위해 일반인에게 보급되며 영역을 넓혔다. 박회장은 크로스핏의 철학은 크게 세가지로 말할 수 있

다고 한다. “첫째는 기능적 동작들입니다. 일반적인 보디빌딩식 트레이닝의 경우, 고정해서 관절운동을 하죠. 그러나 크로스핏은 다중관절을 모두 사용하는 운동을 지향합니다. 둘째, 크로스핏은 늘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날짜에 맞춰 정해진 운동을 반복하는 보디빌딩식 트레이닝과 달리, 크로스핏은 늘 다른 훈련방법을 통하여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철학은 고강도 운동이라는 것

입니다. 짧은 시간을 해도 강도 높은 운동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어느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육체적인 준비를 만드는 것입니다.”라며 크로스핏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평상시 위급상황에 대비해 더 안전하고, 더 적합한 움직임을 위하여 만들어진 운동 크로스핏. 이렇게 빠르게 일상 생활에서의 기초체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크왕의 급성장 요소가 아닐까?





다양한 친구들과 같이 크로스핏을 즐기기 위하여

박회장은 처음에는 그저 연세대 및 다른 학교 친구들과 같이 운동을 하려고 만들었다고 한다. 자신이 마지막 학기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일단 해보자는 생각으로 페이스북에 공지를 올리자 폭발적인 열기에 본인조차 조금은 당황스러웠다고 그때의 열기를 회상했다.

박회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주춤한 것과 반대로 인기가 높고 외부에서, 또 부원들이 많은 노력과 도움을 줘서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 저희가 신생동아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저 사회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심을 가져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더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며 운동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부원 모두 약점이 없는 기초체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대학 동아리 활동에서 얻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어가기에 원한다고 말했다.

나 자신과의 싸움, 크로스핏

기자가 취재를 나간 11월 1일, 연세대학교 운동장에서는 크왕 부원들과 고려대학교에서 크로스핏을 하는 학생들이 같이 운동하는 행사가 치러졌다. 처음에는 회의에서 고대와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고, 경기라고는 하지만 친선적인 색깔이 강하다고 말했다. “크로스핏이 재미있는 게 누구나 할 수 있고 체형에 따른 장·단점이 강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국제대회에서도 다양한 체격의 사람들이 나오고 말이죠. 크로스핏의 이런 특성상 여러 사람을 만나며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크로스핏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만큼, 남을 이긴다기보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성격이 강한 운동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죠. 운동의 성격 자체가 타인과 경쟁이 아니기에 오히려 친선전으로 오늘



행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냐가 싶습니다.” 크로스핏은 보기와 달리 결국 자신과의 경쟁에서는 성취감을, 다른 사람과는 우애를 다지게 되는 운동이었다.

온라인상에는 크로스핏을 하면 관절이 다 상하게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떠돌기도 한다. 이런 속설에 대해 박회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얼핏 과격해 보이기도 하지만 준비운동만 잘 한다면 팀 스포츠에 비해 불확실성이 적은 운동이기에 더 안전하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말이 떠도는 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다고 이불안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불을 박차고 나가 연세대 크왕과 함께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운동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글/김민수 (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사진/권오준 (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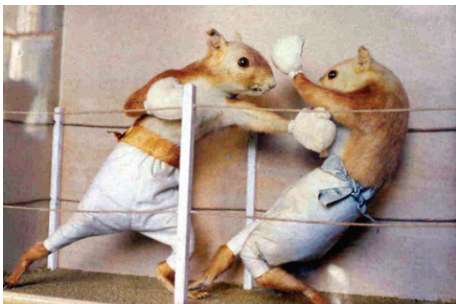


“홈 어드밴티지(Home Advantage)”,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2002년 6월, 더운 여름을 더욱 더 뜨겁게 달구었던 월드컵의 열기를 아마 기억할 것이다. 벌써 13년 전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단결력을 보여준 열띤 붉은 악마의 응원과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 주심으로 유명세를 탔던 바리알 모레노 심판의 단호한 표정 등 갖가지 장면들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얹혀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 속 한편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2002 월드컵이 그 어느 월드컵보다 감동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4강 진출이라는 믿기 힘든 쾌거를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한국의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결과에는 바로 개최국의 '홈 어드밴티지(Home Advantage)'가 작용했을 것이라 말한다.

이렇듯 스포츠에는 '홈 어드밴티지'라는 말이 있다. 원정팀과 홈팀의 경기에서는 홈팀이 승리하기에 보다 유리하다는 말이다. 실제로 어느 스포츠에서나 홈경기의 승률이 어웨이 경기 때의 승률보다 더 높다. 국내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지난 해 원정 승률은 42%였던 것에 비해 홈경기 승률은 48%였다. 프로축구구단 부산 아이파크는 지난 해 K리그 클래식 경기에서의 원정 승률이 16%였으나 홈 승률은 그 두 배인 32%를 기록했다. 유럽 클럽 축구 경기를 보면 홈 어드밴티지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퍼거슨 감독 시절,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퍼거슨 감독의 은퇴 전 시즌(2010/2011~2012/2013) 동안 맨유의 리그 홈경기 승률은 86%(57경기 49승 3무 5패)이었다. 2010/2011 시즌에는 홈에서 치른 19경기에서 18승 1무(승률 94.7%)를 기록하며 홈 무패행진으로 리그 우승을 거두기도 했다.

선수들의 심리학적 '통제감' 및 생리학적 이유



<http://io9.com> 출처

영국 노섬브리아 대학(Northumbria University)의 진화심리학자인 닉 니브(Nick Neave) 교수 연구팀은 영국의 한 프로축구팀을 대상으로 선수들의 타액 샘플을 수집하여 홈경기의 이점을 피코 그램(picogram ; 1그램의 1조분의 1)으로 측정했다. 2번의 원정 경기와 2번의 홈경기, 그리고 3번의 연습 경기를 치르도록 하였는데, 각 경기 한 시간 전에 타액 샘플을 채취해 선수들의 테스토스테론 양을 측정하였다. 니브 교수팀이 축구선수들을 상대로 실시한 타액조사 결과 홈경기 때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어웨이 경기 때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축구선수들의 평균 테스토스테론 함량은 보통 타액 1cc 당 100피코 그램. 어웨이 경기 때 이 호르몬 농도는 평균 1cc 당 120피코 그램에 머물렀으나 홈경기 때에는 놀랍게도 평균 150피코 그램으로 상승했다. 특히 숙적 라이벌 팀과 경기를 할 때는 이 수치가 167피코 그램에 달했다. 니브 교수

는 이에 대해 "자기 영역을 수호하려는 다른 동물들처럼 축구 선수들도 자신의 영역인 홈그라운드에서는 이를 지키기 위해 더욱 정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하며, 외부 팀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더욱 활동적이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도 홈경기 승리에 영향을 미치나

어떠한 경기이든 경기장에 가 본 사람이라면 홈팀에게 주어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응원 소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원정팀의 기가 죽은 듯 느껴지고 마치 경기 자체가 기울어진 것처럼 보였던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9만 명이 넘는 관중이 입장하는 바르셀로나 누 캄프에서 바르셀로나 홈팀의 응원소리와 원정팀에게 쏟아지는 적대감 섞인 야유는 원정팀 입장에서 가히 공포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뮌스터대학의 스포츠심리학자인 베르트 슈트라우스 교수는 홈경기의 이점은 관중들의 함성과 박수에서 기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스포츠전문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ports Illustrated, SI)' 또한 많은 사람들이 홈 관중의 열광적인 응원에 힘입어 홈 팀 선수들이 승리한다고 믿지만 관중의 응원이 홈 팀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는 요지의 기사를 내놓았다.

홈그라운드의 관중들은 특히 더 요란하고 열정적이며 무엇보다도 편파적이다. 슈트라우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상적인 경우 관중이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겠지만, 때로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악영향을 끼친다. 환호는 때로 야유가 되고, 박수갈채는 오히려 선수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다. 관중들의 요란한 응원 덕에 선수들은 더 빨리 달리기는 하겠지만 골을 더 잘 넣게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http://larrybrownsports.com> 출처

그렇다면 관중들의 응원도 홈 팀의 승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습게도 열광적인 홈 팀의 응원은 심판의 편파판정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홈 팀의 승리에 도움을 준다. 심판들은 오해라고 하겠지만 홈 팀의 편파적인 응원으로 인해 심판의 판단력이 흐려질 가능성과 심리적인 압박은 분명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프로야구에서 홈 팀 타자에게 유리한 볼 판정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축구에서는 경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칙 패널티를 원정팀에게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굳이 미국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홈 팀이 지고 있는 경우 추가 시간을 연장하여 주거나, 공격이나 수비 상황에서 홈 팀의 반칙이 나올 경우 휘슬을 불지 않고 자연스럽게 경기를 진행하는 등 심판이 재량껏 홈 팀에게 주는 홈 어드밴티지가 분명 존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의 판정은 고의적인 것일까?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심판 개인으로서의 흥분한 관중들에 의해 정신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심판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하고 경기 후 불상사를 막기 위한 기제로 자연스레 홈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이다.

원정팀은 새로운 환경에서 질병에 취약하다

최근 영국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 ; BMJ)에는 홈 어드밴티지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University of Cape Town)의 마틴 슈웰너스(Martin Schwellnus) 교수 연구팀은 2010년에 14인제 럭비 토너먼트에 참가한 259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호주, 남아공, 뉴질랜드 3개국에서 16주간 대회가 열리는 동안 선수들의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했다. 그 결과 장거리 비행 전 경기에 참여한 1000일 중 질병에 걸린 횟수는 약 15건에 불과하였으나 장거리 비행 후 원정 경기를 했을 때에는 약 3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거지로 비행하여 돌아와 경기에 참여한 1000일 간의 질병 건수는 다시 약 11건으로 낮아졌다.

연구를 수행한 마틴 슈웰너스 교수는 "지금까지 원정팀이 불리한 이유는 장거리 비행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피로, 비행기 내 세균 때문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새로운 환경에서 대기 오염이나 온도, 습도, 음식, 세균, 알레르기 물질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이 매주 토너먼트로 열린 대회였기 때문에 올림픽 등의 경기와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홈 어드밴티지, 원정팀을 배려해야만 하는 이유

홈 어드밴티지는 어느 종목에나 있으며 원정팀 선수들뿐만 아니라 원정팀의 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홈팀의 선수들과 관중들이 홈그라운드에서 심리적인 여유를 누리며 각종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일에 이점을 누린다는 사실은 역으로 말하자면 원정팀의 선수들과 관중들이 심리적인 압박감과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로 인해 다소 불편한 경기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홈팀은 원정팀이 최소한 경기 이외의 영역에서만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원정팀에게 시설 면에서의 차별을 두거나 불이익을 그대로 묵인하는 것은 스포츠인답지 못한 태도이다. 프로야구의 모 구단 감독은 "원정팀에 잘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원정을 나가서 돌려받는다."며 "홈은 하나지만, 원정은 여덟 군데다. 서로 배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홈 어드밴티지의 이점은 잘 살리면서도 원정팀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는 배려의 미덕이 스포츠 환경 곳곳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글/한지영(KUSF 대학생 기자단 블로그팀)

사진/출처_사진 1 ; <http://io9.com> 출처, 사진 2 ; <http://larrybrownsports.com> 출처



부상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부상은 몸에 새겨지는 훈장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다. 선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부상은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응원하는 팬들은 항상 마음을 졸이며 경기를 지켜본다. 스포츠 현장에서 팬들만큼 선수들을 노심초사하며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스포츠타레이너다. 누구보다 선수들 가까이에서 살피면서 최선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대한항공 점보스 홍원기 트레이너 또한 배구코트 안팎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쏟고 있었다. 선수의 부상과 팀의 성적은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트레이너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 * *

Q. 자기소개와 대한항공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배구단 트레이너를 맡고 있는 홍원기 트레이너입니다. 저희 팀에는 세 명의 트레이너가 있는데 지금은 정중일 트레이너께서는 체력코치로 올라가셨고 저는 재활과 병원 업무를 맡고 있고 제 밑의 심규화 트레이너는 영양과 도핑 업무를 맡고 있어요. 원래는 미팅을 통해 각자 필요한 업무를 맡았는데 2년 전부터 업무를 분담하게 되어 분업화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Q. 트레이너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학교 오기 전에는 이런 직업이 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학부 때 이쪽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스포츠 의학에 대해 흥미가 생겼고 그 후 전공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배구동아리를 해서 배구에 대해 관심이 있던 와중에 대학교 졸업이 다가오고 취업의 문제를 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 트레이너 모집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

는데 운 좋게 2008년 LG 그레이터스 배구단에 들어온 게 트레이너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2009년 우리캐피탈에서 1년 동안 일했었고, 2011년 외국인선수인 예반 페이택 선수가 구단에 들어오면서 저도 대한항공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다른 종목에서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

Q. 트레이너의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아침 7시 반쯤에 선수들이 기상하자마자 체중을 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평소에 10시부터 12시까지 훈련이 있는데 저희는 항상 30분 전에 나와 있어요. 저희 도움이 필요한 선수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준 다음에 점심시간이 끝나고 3시 반부터 또 훈련이 있어요. 그때는 한 시간 전에 나와서 치료나 보강을 해주는데 테이핑을 많이 해줘요. 6시에 훈련이 끝나면 밥을 먹고 7시 반부터 11시까지 치료하는 시간을 가져요. 시즌 동안에는 이를 외박을 줄 때 외에는 선수들이랑 같이 합숙을 하며 지냅니다.

Q. 배구선수들이 주로 다치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포지션별로 쓰이는 특정 근육이나 동작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력을 강화하는 부위도 달라요. 이에 대해 이해하는 부분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에 있어서 포지션에 대한 움직임을 알면 좋기 때문에 배구에 대해 알면 트레이너 일을 하기 더욱 좋다고 생각해요. 리베로를 제외하고는 발목을 많이 다치는데 발목은 블로킹 할 때 접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무릎은 무거운 웨이트를 들거나 점프를 할 때 무릎이 앞으로 빠질 때 많이 다쳐요. 어깨는 특정 스윙이 잘못됐을 때, 허리는 리베로들이 수비동작에서 많이 다치기도 합니다.

Q. 재활을 담당했던 선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누군가요?

굳이 한 명을 뽑자면 지금은 삼성화재로 간 류윤식 선수가 기억에 남아요. 재활을 하면서 경기를 뛰다가 무릎을 다치게 되어서 수술을 받고 재활을 받은 경우였어요. 그러면서 류윤식 선수가 저랑 같이 가장 오랫동안 재활을 해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류윤식 선수가 고맙다고 표현을 한 적 있는지) 인사치레로 고맙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잖아요. 나름 제 생각으로는 '고마워하겠구나.'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Q. 부상당한 선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가 아픈 게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고 이해를 많이 시켜주려고 해요. 자신이 아픈 게 세상에서 제일 아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먹으면 재활이나 치료가 더더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재활을 하기 위해서 강하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선수가 힘들다고 하면 조금은 물러나고 다시 세계 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서서히 가는 것보다는 강하게 선수들을 재활시키는 편이에요. 선수들이 아프다고 표현을 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네가 아픈 게 괜찮다'고 계속 이해를 시킵니다.

Q.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선수들이 안 아프고 경기에서 100% 제 기량을 발휘했을 때예요. 아픈 선수가 다 나아서 내 손을 떠났다가 아니라 코트에서 웃으면서 즐기면서 경기를 뛰는 걸 보면 보람을 많이 느껴요. 아픈 선수가 나아서 다시 경기에 나서는 것도 기쁘지만 선수가 부상 없이 경기를 꼭 뛰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저희 역할을 충실히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뿌듯합니다.



Q. 트레이너가 되고 싶은데 막막한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와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두 가지 트레이너 협회가 있는데 어디가 좋다 나뭇을 떠나서 두 기관에 가면 기본적인 교육이나 어떻게 하면 트레이너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나오니까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자리는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나라에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은 없고 종목마다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도 없어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KATA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Q. 트레이너를 꿈꾸는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해주세요.

저도 KATA 정회원자격증이 있고 카셉(KACEP)이라고 임상운동사 정회원 자격증도 있고 마사지 자격증도 있는데 모든 자격증을 수집하면서 모으기보다는 자기가 추구하는 치료나 재활 쪽에 있어서 자격증을 선택적으로 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활과 관련된 학문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직접 하기도 하고 몸을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의 몸을 관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Q. 대한항공 트레이너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한항공 배구단에 속한 모든 관계자들의 목표는 우승이에요. 우승이라는 걸 하게 됐을 때 모든 선수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해요.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선수들이 나이가 들면 은퇴가 다가오게 되는데 자신들은 뛰고 싶는데 아파서 은퇴를 하는 경우를 몇 번 보다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안에서요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은퇴 전까지 아프지 않고 선수들이 제 기량을 끝까지 발휘하는 것 또한 저를 포함한 트레이너 셋의 목표입니다.

한국야구의 근간이 되는 대학야구, 대학야구 전성기의 명승부를 짚어보다.

지난 10월 31일 한국시리즈 5차전을 끝으로 2015 프로야구가 종료됐다. 뒤이어 야구팬들은 2015 WBSC 프리미어 12 경기를 시청하며 열광했다. 그렇다면 대학야구는? 9월 22일 2015년 전국대학야구추계리그전을 끝으로 프로야구보다 약 한 달 정도 먼저 시즌을 마무리했다. 9월부터 11월까지 야구팬들에게는 볼거리가 풍성했던 여정이었다.

대학야구의 묘미는 바로 재능이 넘치는 아마추어 선수들이다. 중학야구에서 고교야구로, 또 고교야구에서 대학야구로 넘어오며 만개 직전의 선수들의 기량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물론 고교에서 프로로 직행하는 선수들도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야구의 수준을 얕잡아 볼 수만은 없다. 현재 대학야구는 우승팀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5 전국대학야구추계리그전만 보아도 우세한 한 학교를 꼽을 수 없을 만큼 모든 팀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한 경기 한경기가 명승부였으며 3주 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은 프로 못지않은 열정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학야구 전성기였던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은 어땠을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가 과연 존재하였을까? 대답은 YES이다. 바로 1978년에 열렸던 제12회 대통령기 전국야구대회 준결승전이 바로 대학야구를 대표하는 명승부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의 전설, 최동원과 임호균의 대학시절 맞대결은 올드야구팬들에게는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레전드매치’였다.

1978년 6월 4일 연세대와 동국대는 제12회 대통령기 전국야구대회 결승행 티켓을 두고 맞붙게 되었다. 마운드에 올라선 투수는 바로 故 최동원 선수와 임호균 선수였다. 사실 대학 진학 이전부터 초고교급 스타로 명성이 자자했던 두 선수의 격돌이었기 때문에 경기 시작 전부터 승부를 예측하는 호사가들이 넘쳐났었다. 최동원은 경남고 시절부터 유명했던 스타투수였다. 다이내믹한 투구폼으로 공격적인 투구가 특징인 최동원은 연세대로 진학하여 그 실력을 유감없이 뽐내던 명실상부 에이스였다. 이에 맞서는 임호균 역시 중학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낸 투수였다. 야구 명문 인천고로 진학한 후 3학년 한 해 동안 노히트 노런을 두 번이나 달성한 초고교급 투수였으니 승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

경기는 당대 최고의 투수들이 격돌한만큼 투수전으로 진행되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0의 균형을 유지하였는데, 무려 연장 14회까지 0-0 상태로 두 선수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였다. 결국 일몰로 인해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가 없었고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되었다. 다음날 재개된 경기 역시 0의 균형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으나, 연장 18회초 연세대 김봉연의 결승홈런이 터져 연세대가 1-0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최동원은 대회 일정상 곧바로 이어진 성균관대와의 결승전에서도 마운드에 서게 되었는데 이틀에 걸쳐 27이닝 375투구 12안타 33탈삼진 2실점이라는 진기명기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최동원의 활약에 힘입어 연세대는 성균관대를 3-2로 제압하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대학야구의 묘미는 바로 이와 같은 패기 넘치는 어린선수들의 활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준결승에서 탈락하였지만 임호균 역시 23살의 나이에 국가대표로 발탁된 스타플레이어임을 감안했을 때, 이 날의 경기가 얼마나 치열했을지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선수는 졸업 후 프로로 진출하여 전설로 남은 현역시절을 보냈다. 프로야구의 근간이 되는 아마야구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2016시즌의 대학야구 역시 이번 프리미어 12의 우승을 발판삼아 한층 더 뜨거운 열기로 채워질 것임을 예측해본다.

글/박대진(STN)



2015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 폐막으로 5개월여의 대장정 마무리



지난 11월 22일(일) 신촌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2015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의 마침표를 찍는 폐막식이 개최됐다.

22일 여자부에 이어 남자부 결승이 끝난 직후 오후 4시부터 진행된 폐막식은 협의회 집행위원인 한종우 교수와 장봉근 체육부장, 협의회 김성태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강신욱 집행위원장의 폐회사로 문을 열었다. 강신욱 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첫 출범한 여자부에서 볼 수 있었던 활력을 통해 그간 찾지 힘들었던 건강한 체육 활동에 대한 여학생들의 의지와 활력을 확인했으며 전국권역으로 확대된 이번 농구동아리 U리그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아마추어 스포츠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대회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진행된 항목별 시상에는 성적에 따른 팀 시상과 대회 MVP에 대한 개인 시상이 펼쳐졌다. 먼저 팀 시상에는 남자부는 5위와 공동 3위, 준우승과 우승이 차례로 이어졌으며 여자부는 공동 3위와 준우승, 우승 순으로 이어졌다.(남자부=▲우승 고려대 ZOO ▲준우승 명지대 돌핀스 ▲공동 3위 인천대 스타트, 인하대 인하DS ▲5위 중앙대 CAD / 여자부=▲우승 덕성여대 CLUTCH ▲준우승 이화여대 EFS ▲공동 3위 한체대 칸스, 명지전문대 카리스마) 팀 시상 직후 이어진 대회 남녀 MVP는 각 우승팀 주축 선수인 고려대 ZOO 박진혁과 덕성여대 CLUTCH 편소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 대회 전체 기간 동안 대회 운영에 매진해온 운영팀에 대한 시상과 대회 개최에 아낌없는 지원을 쏟은 강신욱 교수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폐막식은 막을 내렸다.

대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증대와 이를 통한 건전한 체육 활동 및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해 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대학농구동아리 U리그는 지난 2014년 54개 팀이 참여했던 것에 비하여 이번 2015년 총 74개 팀 1,0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하며 대회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전국권역으로 확대 및 여자부 출범이라는 2마리 토끼를 다잡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앞으로도 협의회는 더 다양한 종목을 통해 대학생들의 체육 활동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2015 대학스포츠리그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 및 활성화 세미나 개최



11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지난 28일 명지대학교 방목정보학술관 국제회의장에서 2015 대학스포츠리그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 및 활성화 세미나가 펼쳐졌다. 2015 한 시즌 동안 대학스포츠리그를 뜨겁게 달궜던 대학생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의 활동을 정리하고 대학스포츠리그 및 대학생 서포터즈에 관한 대학생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해단식과 세미나가 각각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학스포츠리그 대학생 서포터즈의 해단식으로 꾸러진 1부는 협의회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강신욱 교수의 개회사와 집행위원이자 재정·마케팅분과위원장인 박장근 교수의 격려사로 그 막을 올렸다. 이어 2015 서포터즈 28개 팀(▲농구 11팀 ▲배구 6팀 ▲통합 1팀 ▲축구 11팀)의 전체적인 활동의 성과를 보고하고 종목별 서포터즈 수료증 수여, 우수 서포터즈 시상 및 우수 서포터즈 활동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2015 우수 서포터즈는 현장 실무자인 종목별 주관 기관의 추천 및 관중 동원률과 SNS 활동 지수 등의 활동 평가로 선발됐으며 전체 팀 중 최우수 1팀과 우수 2팀, 총 3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최우수 = 상명대 농구 서포터즈 ▲우수1 = 인하대 배구 서포터즈 ▲우수2 = 청주대 축구 서포터즈) 한편 이날 해단식에는 집행위원회 강신욱 교수, 박장근 교수와 더불어 집행위원인 KBS 정재용 기자, 장봉근 체육부장, 한국대학축구연맹 박태섭 부회장, 협의회 김성태 사무처장을 비롯해 대한축구협회 U리그 담당 김지숙 대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뿐만 아니라 해단식의 주인공인 2015 대학스포츠리그 전 종목 서포터즈 120여 명과 함께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 이하 협의회) 및 스포츠마케팅 대학생 연합동아리 (SmarterR)(이하 스마터)와 함께하는 대학스포츠리그 활성화 세미나로 꾸러진 2부는 '대학스포츠리그와 대학생 서포터즈, 그 역할과 의미'를 주제로 한 경쟁 프리젠테이션으로 펼쳐졌다. 이번 세미나는 대학생의 시선에서 들어보는 대학스포츠리그와 서포터즈에 관한 의견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자리로, 그 심의는 심사위원과 실제 서포터즈 활동을 펼친 서포터즈팀들이 각각 6대 4의 비율로 집계됐다. 심사위원에는 협의회 강신욱 집행위원장과 박장근 재정·마케팅분과위원장, 김성태 사무처장이 참여했으며 주관 동아리인 스마터는 상대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스포츠마케팅 소모임 (K-Smarter)(이하 스마팅)과 함께 대학스포츠리그에 다양한 활성화 아이디어에 대한 경쟁을 펼쳤다. 심사위원과 각 서포터즈팀들의 점수의 평균의 합산하여 배점에 따라 집계한 결과, 활동에 대한 명확한 견해와 대학스포츠리그 내에서의 서포터즈 관련 다양한 연계 방안을 제시한 스마터의 우승으로 세미나는 막을 내렸다.

12월 KUSF 주요 일정

2015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소양 및 체육계 비리에방 교육

- 4일 대구대학교
- 7일 건국대학교
- 9일 동국대학교
- 11일 인하대학교
- 15일 용인대학교
- 17일 가톨릭관동대학교
- 18일 동아대학교
- 22일 목포대학교
- 23일 우석대학교

KUSF 대학스포츠
웹진 12월호취재
후일담

대학리그소식 농구편에서 최초로 여자 농구 선수를 다룬 12월호가 나왔습니다! 벌써 2015년의 끝이 다가온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ㅎㅎ 독자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김민수(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12월호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창간 후 처음으로 동계종목 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컬링은 동계종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훈련하고 있고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컬링부는 국내에 유일한 여자 대학 컬링 팀으로 귀중한 존재 가치를 가진 팀이자, 한국 여자 컬링의 미래이기도합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품은 뜨거운 열망을 잃지 않고 차가운 얼음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성신여대 컬링부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 12월호 대학배구리그소식에서는 2015시즌 각 팀 리뷰와 2016시즌 예상 전력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로써 정말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KUSF 웹진 독자여러분들도 12월 한 달 동안 지난 2015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2016년의 알찬 계획을 짜보시는 것 어떨까요?^^

서다영(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대학리그 신인왕 특집 제2탄 변준형 선수와 인터뷰하는 날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처럼 야외에서 변준형 선수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지만 대신 농구선수로서의 모습을 많이 담았습니다. 김승현 선수 이후로 오랜만에 동국대에 나타난 대형가드의 성장을 많이 지켜봐주세요! 멘토를 만나다의 홍원기 트레이너의 인터뷰도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 감독이나 선수한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기 마련인데 트레이너 또한 좋은 성적의 필수 요소이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갑자기 외국인 선수가 부상당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대한항공인데 올 시즌 대한항공의 행보도 지켜봐주세요!

이규호(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